

## 전략촌 대마리의 형성과 향군촌 정체성의 변화

: 평화합축적 상징의 수용을 중심으로

정근식 (서울대)

이원규 (서울대)

### 국문 요약

이 글은 접경지역 최초의 전략촌인 대마리의 조성과정에서 형성된 공동체적 경험이 이후의 사회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2세대 주민들이 향군촌과는 다른 평화합축적 상징들을 어떻게 마을 정체성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사회사적 연구이다. 한국 정부의 전략촌 설립구상에 의해 조성된 대마리의 주민들은 개척 과정에서 발생한 지뢰피해와 토지소유권 분쟁의 상흔을 안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고난 극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싶어 했으며, 그것을 개척비로 표현하였다.

대마리 주민들은 2000년부터 자신들의 안보지향적 정체성을 뛰어 넘어 생태문화마을로서의 지향을 드러냈고, 나아가 탈냉전적 상징들을 마을의 정체성으로 흡수하였다. 이것은 리더십의 세대교체로 인해 가능했다. 2세대 주민들은 공동체적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실용적 발전주의의 맥락에서 철원의 자연, 역사적 유산, 문학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평화합축적 상징에는 두루미, 노동당사, 상허 이태준 등이 포함된다.

주제어: 전략촌, 재건촌, 지뢰, 개척비, 백마고지, 두루미평화관, 이태준

## I. 문제 제기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는 1968년 8월 한국 정부에 의해 형성된 최초의 전략촌이자 폐허에서 만들어진 '재건촌'이다. 마을 입구에는 방문자를 환영하는 커다란 표지석이 있고, 그에 이어 철원의 유명한 잔해폐허인 '노동당사'를 본 딴 '두루미평화관'을 만날 수 있다. 이 마을회관 1층에는 생태·평화 관광을 겨냥하여 만든 식당이 있고, 건물의 앞뜰에는 이 곳 출신의 작가 상허 이태준 문학비가 서 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최초 입주민 150세대의 고투를 상징하는 개척비가 서 있고, 마을 중심부에 2020년 1월에 개관한 마을 역사문화관 '세모밭자국'이 있다.

〈그림 1-1〉 대마리 개척비(1990)



(출처: 필자촬영)

대마리의 정체성은 1990년에 건립된 개척비와 2000년에 건립된 마을 표지석에 잘 투영되고 있다. 개척비는 마을이 전쟁의 폐허에서 재건된 지 22년 만에 세워진 것으로 마을 1세대의 정체성이 각인되어 있다면, 그로부터 10년 후에 만들어진 마을 표지석은 마을 2세대들의 지향이 각인되어 있다. 개척비의 옆면에는 “피흘려 찾은 땅 피땀흘려 개척했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마을 표지석의 뒷면에는 “피땀흘려 개척한 땅 우리가 지킨다”는 글귀와 함께 “향군촌 대마리”라는 표현이 있고, 전면에는 이 마을이 ‘미래의 청정’ 마을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백마고지라

는 역사적 상징을 꺼안고 싶어 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이 표지석의 지향대로 지난 20년간 대마리는 새 농어촌건설사업, 오대미 마을, 두루미평화관 등 여러 사업을 기획·추진해오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해왔다. 따라서 대마리 마을을 단순히 민간인통제구역에 만들어진 전략촌의 하나라고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한국의 접경지역 전략촌들은 과거 전장이었던 수복지구<sup>1)</sup>에 조성된 국가주도형 마을로,<sup>2)</sup>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대마리는 최초의 전략촌이었기 때문에 몇 가지 의미 있는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엄대용은 이 마을의 역사와 민통선의 북상으로 인하여

〈그림 1-2〉 대마리 마을 표지석(2000)



(출처: 필자촬영)

나타난 마을의 변화를 잘 포착한 최초의 연구이다.<sup>3)</sup> 김연정은 전략촌에 관한 서사의 남성 중심성을 비판하면서, 이 마을에 거주하는 10명의 여성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여성들이 어떻게 농업경영의 주체로 거듭나면서 고난을 헤쳐 왔는가를 밝혔다.<sup>4)</sup> 이장형은 전략촌 정책에서 '중요한 국가의 실패'라고 할 수 있는 토지분쟁을 연구하면서 대마리를 대표적인 사례로 다루었다.<sup>5)</sup>

1) 이에 관해서는 한모니까,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서울: 푸른역사, 2017)를 볼 것.  
 2) 이에 관해서는 전상인·이종겸, 「DMZ 국가촌락 사업 연구: 철원군 '통일촌'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52권 4호 (2017)를 볼 것.  
 3) 엄대용, 「민북마을의 통제완화에 따른 사회·공간적 변화-철원군 대마리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4) 김연정, 「민통선북방마을 여성-땅 관계의 경험서사를 통해 본 여성의 토지 '소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필자는 대마리에 인접한 노동당사와 같은 잔해폐허의 사회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고,<sup>6)</sup> 또한 군사화와 냉전경관의 형성이라는 맥락에서 안보관광과 평화관광을 주목했다.<sup>7)</sup> 이 글은 이런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접경지역 전략촌 연구의 일환이다. 연구의 초점은 한국 정부의 전략촌 설립구상의 결과로서 출발한 대마리가 생태문화마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철원의 역사문화적 자원들을 전유하고, ‘평화’적 함의를 담은 정체성을 수용해갔는가를 이해하는 데에 있다. 안보적 의미가 강한 향군마을이 ‘노동당사’나 ‘이태준’ 같은 분단의 상징들을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수용하려면 상당한 긴장이 불가피하고 이를 흡수할 수 있는 공동체적 연대가 필요한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대마리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자료는 철원군이 추진하는 ‘민북마을 역사 기록물 발간사업’의 일환으로 정춘근 등이 편집한 『대마리 역사 이야기』이다.<sup>8)</sup> 이 책은 대마리에 관한 공식자료, 주민 인터뷰내용, 각종 시각자료 등을 수집하여 정리한 것으로, 대마리의 형성과정과 이들이 겪었던 다양한 사건들에 관한 풍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가 제기한 질문에 답하는데 충분하지는 않다. 따라서 대마리를 포함한 철원군 민북지역에 관한 자료나 주민들의 인터뷰 자료를 보충해야 한다. 대마리 현지조사는 마을의 특성을 파악하는 1차 조사(2019.7.6-7.7)와 다른 전략촌과의 비교에 중점을 둔 2차 조사(7.19-7.22)

5) 이장형, 「수복지구 토지소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강원도 철원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석사학위논문, 2018).

6) Keun-sik Jung, “On the Ruins: Forgetting and Awakening Korean War Memories at Cheorwon” *Development and Society*, vol. 46, no. 3 (2017), pp. 523-555.

7) Keun-sik Jung, “The Militarization of the Border Area and the Cold War Landscape: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its Peaceful Use” *Journal of Asian Sociology*, vol. 48, no. 3 (2019), pp. 287-319.

8) 정춘근 편, 『대마리 역사 이야기』 (철원: 철원군, 2016).

로 이루어졌고, 2020년 3월 20일을 전후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마을의 초기 역사에 관한 신성순의 증언은 주민들의 공동체적 유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II. 전략촌 대마리의 형성

### 1. 전략촌의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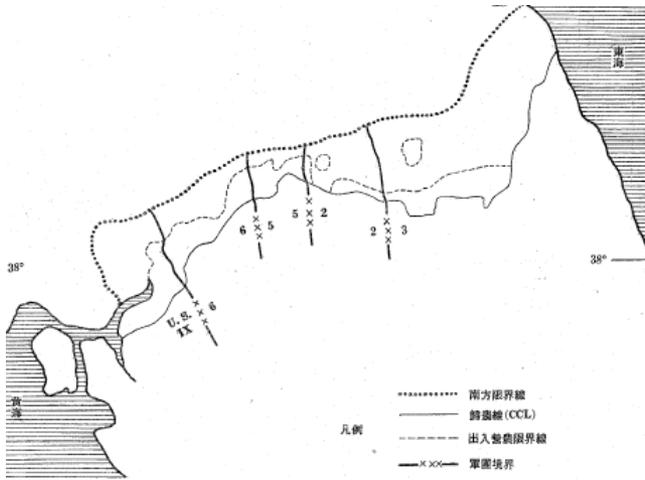
대마리는 1965년부터 정부가 구상하기 시작한 전략촌의 전형적 모델로 그 최초 조성 사례다. 1964년 5월, 육군은 민간인통제구역의 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이양 받은 후,<sup>9)</sup> 정부의 조국근대화 정책에 따라 접경지역의 황무지를 농지로 개발하여 식량증산에 기여하려는 구상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움직임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은 1964년 제작된 홍보영상 대한뉴스 제462호이다. 해당 호에는 “육군 제 7169부대 장병들이 식량증산 운동에 참여하였는데, 부대장 김인경 장군과 함께 25만평 황무지를 개간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김인경은 이후 육군본부 정훈감으로 근무하면서 1965년 국방대학원 졸업논문으로 작성한 글에서 민통선북방의 유휴지 및 영농 실태와 개간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다.<sup>10)</sup> 그는 1964년 6월 3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민

9) 1964년 5월 민북지역 민사활동규정이 각 부대별로 만들어졌는데, 1978년 2월 이 규정들이 통합되어 육군본부가 관리했고, 1990년 10월, 육군본부에서 합동참모본부로 이관되었다. 민사규정이 만들어진 후 각 사단에 이를 담당하는 예민참모를 두었다. 엄대용, 「민북마을의 통제완화에 따른 사회·공간적 변화-철원군 대마리를 사례로-」, 20쪽.

10) 김인경, 「귀농선 북방의 영농문제 고찰」 (국방대학원 졸업논문, 1965).

간인통제구역에서의 통제방침을 논의하였음을 밝히고, 1965년 당시의 접경지역의 출입영농 한계선이 표시된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 지도에는 서부지역에서 동부지역까지의 군단별 방어지역이 표시되어 있는데, 철원지역은 6군단과 5군단이 나누어 맡고 있었다.

〈그림 2-1〉 1965년 접경지역 방어 및 출입영농선 지도



출처: 김인경, 「귀농선 북방의 영농문제 고찰」, 261쪽

당시 1군사령부가 파악하고 있던 군단별 입주영농과 출입영농 상황을 보면, 출입영농은 5군단 지역, 입주영농은 6군단 지역이 많았다.

〈표 2-1〉 1964년 당시 민간인통제구역 영농실태

|     | 입주영농 |       | 출입영농  |        |
|-----|------|-------|-------|--------|
|     | 세대   | 인구    | 세대    | 인구     |
| 2군단 | 128  | 777   | 350   | 792    |
| 3군단 | 695  | 3,602 | 553   | 2,186  |
| 5군단 | 162  | 432   | 5,475 | 13,046 |

|     |       |        |       |        |
|-----|-------|--------|-------|--------|
| 6군단 | 3,106 | 16,910 | 350   | 1,735  |
| 합계  | 4,091 | 21,721 | 6,728 | 17,759 |

출처: 1군사령부, 「민간인통제선 북방 유희지 개간」(1964);  
김인경, 「귀농선 북방의 영농문제 고찰」, 263쪽 재인용.

김인경은 1964년 3월에 철원의 군부대가 농촌출신 제대 장병으로 조직한 동호농장 사례를 소개하면서, 민북지역에서 경지확장 가능성과 함께 영농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그는 사단별 공동경영과 기계화영농을 구상하였다. 그가 언급한 동호농장은 이후 철원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 1967년에 해산되었다. 자신들의 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접경지역에 전략촌을 만들려는 구상은 1966년에 상당정도 진행되어 국회나 정부 인사들이 이스라엘 키부츠(Kibbutz)를 방문하고 실태조사를 하였으며,<sup>11)</sup> 이런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1967년 2월, 내무부는 “접적 및 수복지구 종합개발 추진 개요 및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국방부는 전략촌 조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시작한다. 1968년 8월에 이루어진 최초의 전략촌 입주식에 대마리와 마현2리 주민이 함께 참석한 것을 보면, 적어도 2개 이상의 사단에서 동시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대마리 1세대 주민이었던 이규철이 1987년 3월 11일 작성한 「천막동기들의 연혁」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1967년 1월, 6군단장으로 부임한 “김희덕 장군께서 시찰 중 국가 식량 증산의 욕심(을) 갖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 진언”하였다고 쓰여 있다.<sup>12)</sup> 길윤형이 2007년에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런 생각은 1세대 주민들에게 공유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3)</sup> 당

11) 안동준, 『기적의 나라 이스라엘』(서울: 교학사, 1966).

12) 이규철, 「천막동기들의 연혁」(1987).

13) 길윤형, 「자력갱생, 그 잔인한 40년」 『한겨레 21』 678호(2007).

시 6군단의 구상의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국방부나 군이 품고 있던 구체적인 구상의 일면을 고광도의 1967년 국방대학원 졸업논문인 「귀농 선북방 영농에 관한 연구」에서 볼 수 있다. 그는 1966년 당시의 출입영농 실태와 함께 전략촌 조성의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재건촌 건설이 농업과 전투 기능을 결합하고, 민통선 북방의 출입영농을 체계화 및 통제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sup>14)</sup> 그는 내무부 통계를 이용하여 철원군 농가의 64%가 귀농선 북방에 출입영농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스라엘의 나할(Nahal)제도를 참조하여,<sup>15)</sup> 전략촌의 이념형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주민선발 원칙과 기준, 민병대와 농장의 원리를 결합한 전략촌 편성 원리, 교육과 통제 등에 관하여 자세히 논하고 있다.

1967년 최초의 전략촌 조성은 6군단하의 제20보병사단의 몫이었다. 당시 연천과 철원 지역에 주둔하던 제20사단이 작성한 「전략촌 관리 내규(사단내규 5-5)」 제3조는 전략촌을 “민통선 북방에 국가증산시책에 호응하고 대북심리효과를 얻기 위하여 농업을 생계로 영위하는 자의 직계가족으로 세대를 형성하여 집단 거주하는 부락”이라고 정의하였다. 제4조는 “당 사단 민통선 북방 대마리에 집단 거주하는 부락명칭은 ‘전략촌’이라 칭한다”로 되어 있다. 이 당시 ‘전략촌’은 보통명사라기보다는 고유명사에 가까웠다. 이후 대마리와 유사한 마을이 민통선 북방지역에 더 조성되면서 전략촌은 보통명사가 된 것이다. 당시 정부 및 군은 전략촌의 목적을 식량 증산 및 대북심리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언론은 전략촌 조성을 통해 출입영농을 행하는 가구들을 집단화하고 통제하는 효

14) 고광도는 1967년 육군본부 관리참모부차장으로 근무했고, 1968년 2월 육군본부 감찰감(소장)으로 진급하였다.

15) 고광도는 국방부, 「이스라엘 시찰보고서」(1966) 및 안동준, 『기적의 나라 이스라엘』(1966)을 참조하였다.

과도 기대된다고 보도하였다.<sup>16)</sup>

20사단은 전략촌 건설을 위하여 부사단장을 지휘자로 하는 통제부를 설치하였다. 당시 사단장은 김종환, 부사단장은 신현수 장군이었다. 부사단장의 지휘 하에 예민참모와 몇 명의 인원들이 전략촌 건설의 실무도왔다.<sup>17)</sup> 전략촌은 민간인 통제구역의 유희농지 개척을 통해 식량증산을 꾀하고 동시에 안보를 고려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기획했다는 점에서 국가지원을 받지 않은 기존의 자립안정촌과 구별된다. 국가가 대마리 건설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안보의 의미에는 북한 침공에 대응하는 기능과 북한을 상대로 한 심리전 기능이 포함된다. 대마리의 입주 조건과 정착 과정 일체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의 철저한 지시 및 통제 하에서 진행되었다. 군은 나이, 출신, 직업, 습성, 친인척 관계를 비롯한 주민 구성 내용을 관리했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채 주민들을 군대에 준하는 방식으로 교육, 훈련, 통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군은 동두천에 주둔하던 26사단 공병대대를 대마리 전략촌 건설에 투입하였다. 곽모중령이 이를 지휘하였고, 백모상사가 실무를 지원하였다.

전략촌의 후보지가 대마리였던 것은 왜일까? 이곳이 심리전, 식량 증산, 침공 대응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아우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백마고지의 남쪽으로 연천에서 오는 3번 국도가 지나며, 경원선의 종점 역이었던 연천 대광리와 신탄리에서 접근하기 쉬웠다. 북쪽의 군사분계선과는 6km, 남쪽의 민간인통제선과는 5km 떨어져 있었으며, 특히 주거지로 예정된 부지의 동쪽 끝은 산지에 가로막히지 않아 북한 지역을 훤히 건널 수 있는 동시에 북한 측의 시야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철원 평야가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유희지 면적이

16) 『동아일보』 1967년 2월 14일.

17) 처음 통제부 설치 당시 입주서류를 다룬 예민참모는 문시범 중령이었고 이후 한인호 중령으로 바뀌었다. 신성순의 2020년 3월 25일 구술.

넓어 농업 생산량 증대라는 목적을 충족시키기에 적절했고, 유사시 마을 예비군을 동원해 적군의 진격을 늦추는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지 설정 계획을 제출받은 미군은 304ha(120만 9천평)의 부지를 대마리 전략촌 건설을 위해 사용할 것을 승인했다.<sup>18)</sup>

## 2. 재건촌의 조성과정: 인적 구성과 리더십

대마리는 전쟁 이전까지 철원군 묘장면에 속한 마을이었다. 묘장면의 소재지는 현재의 대마리 마을보다 약 1km 북방에 있었고, 중세리, 산명리 등이 대마리의 북쪽에 있었다. 묘장면의 대부분의 마을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대마리만이 재건되었다. 그러나 묘장면 주민 중에서 재건된 대마리에 돌아온 사람은 약 20여호에 지나지 않았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마리 지역을 개간하려는 시도는 1964년 연천군 신서면 신탄리에 거주하던 박응하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평안도 출신으로 인근 대광리에서 약 30명의 주민들을 모아서 20사단의 허락을 받은 후 민통선을 드나들며 황무지를 개간했다. 1965년 6월에는 연천군 신서면 주민이던 정두화 형제들이 대마리에서 지뢰사고로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sup>19)</sup> 이런 상황에서 1966년 말부터 1967년 초에 정부가 대마리에 전략촌을 건설한다는 소문이 나자 철원읍 주민들은 대마리가 철원군 소재라는 점을 내세워 자신들이 여기에 입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연천 국회의원이었던 오치성과 철원 국회의원이었던 김재순의 조정을 거쳐, 연천은 향군 지부에서, 철원은 읍사무소에서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구체적 자격은 다음과 같다.<sup>20)</sup>

18) 정춘근 편, 『대마리 역사 이야기』, 57쪽.

19) 『경향신문』 1965년 6월 15일.

20) 정춘근 편, 『대마리 역사 이야기』, 64쪽.

(20사단 내규 10조 규정)

- 군대를 제대한 신체 건강한 영농능력이 있는 40세 이하 남자
- 직계 준비속이 2인 이하
- 기본재산이 10만원 이하의 실업 향군 및 영세 농민
- 사상이 건전하고 국토건설 참여의지가 강한 사람
- 관할 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발위원회를 통과한 사람

대마리 입주예정자들은 재산이 적고 직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나이가 젊고 신체가 건강하여 영농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어 주어진 농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했다. 또한 딸린 식구가 적어 식량을 과도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했고, 군사 능력을 갖추고 있어 대마리의 방어에 일조할 수 있어야 했으며, 반공정신이 투철한 동시에 국가 건설에 협조적이어야 했다. 부차적으로, 관할 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을 시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입주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놓기도 하였다.

초기 가입주 당시 총무를 지냈던 이규철의 「천막동기들의 연혁」에 따르면, 철원출신 83명, 연천출신 67명으로 구성된 향군 150명은 1967년 3월 29일, 20사단 군용차로 이동하여 대마리 현지(현재 태양교 부근)에서 하차하여 20사단 통제부가 설치된 장구목골에 천막 4채를 세우고 빈 판위에 버드나무를 깔고 그날 밤 잠을 잔 뒤, 이튿날 훈련에 들어갔다. 이들은 3일간 전투대비 지형숙달과 군영생활 환경정리를 한 후에 산신제를 지내고 태양교 건너편에서 개척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튿날 20사단 부사단장이던 신현수장군이 통제관으로 임명되었다. 대원들이 거주하는 천막들 사이에 통제부 군 요원들의 통제소가 설치되었다.

대마리의 역사에서 가입주와 함께 공사를 시작한 것은 4월 5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입주예정자의 책임자인 향군단장의 지휘 하에 10명씩 15개조를 구성해 군대식 조직 체계를 갖추었다.<sup>21)</sup> 대원들은 현역 군인

들과 함께 지뢰 제거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잡목과 갈대로 우거진 숲에 불을 지른 후 지뢰 탐지 작업을 하면서 26사단 공병대대가 중장비로 평탄작업을 하였다. 모든 행동은 조별 단위로 수행되었고, 외출은 일주일에 1회만 허용되었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한지 1주일도 채 못 된 4월 10일 지뢰사고가 발생하였다. 2조에 속했던 유철훈이 택지선정 작업을 하던 중에 지뢰를 밟아 무릎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 사고로 많은 대원들이 사기를 잃었고, 일부 대원은 마을을 떠났다.<sup>22)</sup>

통제관은 개간대상지역을 5개 지역으로 나누고, 라디오 부속품, 철사, 대나무를 활용하여 만든 조악한 지뢰 탐지 장비를 사용해 약 7천여 개의 지뢰를 제거했다. 특히 4지역에서 지뢰가 많이 탐지되었다. 당시 이들에게 가해졌던 군 통제의 강력함은 입주증 수령 당시 작성한 각서 내용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3)</sup>

-개간을 하다 지뢰 등 폭발물 사고로 사망 또는 다칠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군이 민통선 이남으로 철수를 요구할 경우 따라서 철수하겠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유사 시에는 전투를 한다.

-군부대 통제에 절대적으로 따른다.

-군부대의 지시를 어길 경우 퇴촌 당해도 항변할 수 없다.

이후에도 지뢰사고가 빈발하였다. 1968년 2월 7일, 이아무개씨가 사망했고, 7월 10일에는 또 다른 이아무개씨가 무릎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렇게 1년 동안 목숨을 건 노동으로 집과 논과 학교 터를 닦았다.

21) 초대 향군단장은 조홍수였는데, 수 개월간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고, 그 후임을 박응하가 맡았다.

22) 이 사고 이후 여주에서 온 형제들이 떠났다고 한다. 향군단장으로 일했던 조홍수도 이 때문에 나간 듯하다.

23) 위의 책, 65쪽.

이들은 어려운 개간 과정을 거쳐 밭 45ha, 논 310ha 등 총 355ha의 농경지를 확보하였고,<sup>24)</sup> 1968년 8월 30일 묘장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입주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이 입주식에는 내무부, 농림부, 국방부의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지역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군수, 군단장 2명과 사단장 1명이 참석하였다. 내무부장관의 격려사에서는 농가당 2ha의 토지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입주식에는 대마리 주민 15세대 뿐 아니라 마현2리 주민 5세대도 참석하였다. 따라서 이 입주식은 엄밀하게 말하면 대마리 입주식이 아니라 최초의 전략촌 입주식이었던 셈이다. 입주식에서 대마리는 재건촌이면서 이스라엘식 집단농장으로 소개되었는데, 그 내용은 유사시 자재방어를 위해 예비군 특수중대를 설립하고, 여성들도 마을 방위에 나서는 전략촌이며, 한국에서 최초로 기계화된 집단모범농장이라는 것이었다.<sup>25)</sup>

당시 대마리 입주민은 철원 출신 향군 85세대, 연천 출신 향군 65세대로, 남자 434명, 여자 415명 도합 849명이었다. 이들 중에는 1964년부터 대마리 개척에 나섰던 박응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육군 중령 출신인 최인기가 입주자들의 선임이었고, 이밖에 대위 1인과 26사단에 근무하면서 전략촌 조성계획에 참여했던 김호길, 그리고 20사단 통제부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박정수 등 3명의 중위 출신 예비역장교가 포함되었다. 김호길은 예비군 소대장을 맡았다. 입주식과 함께 기존의 15개 조는 별다른 변화 없이 마을의 15개 반으로 전환되었고, 군부대-이장-반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통제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장의 권한은 비교적 강력하게 작동하였다.

입주민은 정기적인 예비군 훈련에 동원될 수 있어야 했으므로, 연령을

24) 내무부,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1980), 8~9쪽.

25) 『경향신문』 1968년 8월 30일.

40세 이하로 한정했다. 대마리 입주 당시 인구 구성에서 특이한 점은 안보 목적을 위해 ‘반공정신이 투철한 제대군인’만을 선발했다는 점 이외에 원주민보다 외래인이 월등히 많았다는 점이다. 주민 150세대는 모두 농사에 종사하였지만, 철원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143세대를 농가로 분류하였다. 세대주는 원주민이 20명, 외래인이 130명이었다.<sup>26)</sup>

전략촌의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였던 대북 심리전은 마을의 가옥 외관 및 배치를 통해 이루어졌다. 북한의 선전촌에 대응하여 대북 선전 효과를 최대한으로 구현해내는 것이 대마리 초기 조성에서 중요했다. 대북 우위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동일한 외양의 규칙적 배열이 마을 주택건설에 채택되었다. 정부의 지원으로 지어진 가옥들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덮여 있는 벽돌집들로, 도로 양편에 2열 종대로 배열되었다. 주택단지의 직경은 500m였다. 이러한 마을 형태는 유사 시 마을 내 예비군의 신속한 동원, 그리고 주민들의 형평성을 통한 단결 도모라는 이념에 기초한 것이기도 했다. 마을 시설물로 11.7평짜리 주택 150동, 묘장국민학교, 무기창고, 공회당이 국비 지원을 통해 건설되었다.<sup>27)</sup> 또한 경운기가 한 개 반에 한 대씩 총 15대가 무상 지급되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계화 영농 조건이 확보되었다.<sup>28)</sup> 경운기는 심지뽑기로 개인에게 할당되었다.

군은 마을 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개인이 자신의 가옥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농지 개간과 마을 조성 과정에서의 강력한 군 통제는 마을 입주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마을에 보안대원이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을 규제하였다. 보안대원은 북한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했다. 선거철에는 야당 선거운동

26) 철원군 농업정책과, 「민통선북방지역 마을현황」(1981). 이 통계에서 원주민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묘장면 출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7) 정춘근, 『대마리 역사 이야기』, 93~94쪽.

28) 『중앙일보』 1968년 8월 30일.

관련자의 마을 출입이 어려웠고, 군인들이 투표장 근처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sup>29)</sup> 또한 외부인이 마을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은 후 통제소를 거쳐야 했으며, 신문 배달도 차단되었다. 대마리는 사실상 외부 세계와 단절된 마을이었다.<sup>30)</sup> 정부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반공 계몽, 문화 계몽 등을 계획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sup>31)</sup>

대마리는 입주자가 연천출신과 철원출신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을의 리더십 구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대마리의 초대 이장은 철원 출신의 마숙태였다. 그는 헌병 출신으로 주로 행정기관과의 연락을 책임졌다. 그에 뒤이어 2대 이장은 연천에서 대마리 개척을 시작했던 박응하였다. 그는 주로 군부대와의 협조 문제를 맡았다. 마숙태가 철원그룹을 대표했다면, 박응하는 연천그룹을 대표했다. 3대 이장은 입주민 중 가장 군 계급이 높았던 최인기였는데, 그는 제대 후 연천에 거주하던 중 대마리에 입주하였다. 1972년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2인 체제로 마을이 운영되었는데, 초대 새마을지도자는 신성순으로 6년간 일했다. 이장은 군부대와의 교섭을 통해 영농출입증을 교부받거나 군청과의 교섭을 담당했고, 새마을지도자는 마을 내부의 공동 노동이나 기반시설 정비를 책임졌다.

대마리의 리더십을 분석해보면, 철원과 연천이라는 두 연고지역간의 잠재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대로 이장을 맡는 현상이 발견되고, 군 복무시절의 계급이 존중되었지만, 공동의 개척과정에서 서열의식은 많이 희석되었다. 3대 이장이었던 최인기는 중령 출신으로 상급자여서

29) 엄대용, 「민북마을의 통제완화에 따른 사회·공간적 변화 - 철원군 대마리를 사례로」, 47쪽.

30) 위의 논문, 50쪽.

31) 대통령비서실, 「접적 및 수복지구 개발을 위한 제2차 회의」 (1967), 42쪽.

주민들로부터 자문관으로 대우받았지만, 특별히 마을의 권력을 독점하지는 않았다.

대마리의 초기 영농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갓 개간된 농경지의 생산성에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했기 때문에 개인별로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초기 3년간 공동 경작을 원칙으로 하되 각자 일굴 땅을 추첨으로 정하였고, 후에 생산된 것을 분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이후 조성되는 재건촌들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다. 1972년에 농지가 정식으로 개인들에게 분배되었다. 호당 약 6천 평의 토지가 분배되었다. 토지는 즉시 농사가 가능한 A급, 물이 공급되면 농사가 가능한 B급, 아직 농사짓기 어려운 C급으로 분류한 뒤, 각 반에 고르게 분배하였고, 분배한 땅을 다시 반별로 재분배하였다. 호당 약 6천 평의 토지가 분배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수리시설이 충분하지 않아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다.<sup>32)</sup> 1967년 대통령비서실이 작성한 「접적 및 수복지구 개발을 위한 제2차 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입주 이전부터 수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이때까지 수리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따라서 주민들은 역곡천의 물을 양수기로 끌어 올려 사용하면서 전쟁 때 파괴된 산명호 재건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산명호는 1952년 백마고지 전투 당시 중공군이 수공작전에 사용한 이래 보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대마리 주민들은 자금을 대출받아 1971년 9월 산명호 보 재건공사를 시작하였고, 1973년 11월 완공하였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주민들은 황무지 개간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그 결과 입주 당시 355ha에 불과했던 경작지가 1970년대 중반에는 800ha로 두 배 이상 확장되었고, 1세대 당 농지면적은 5ha를 상

<sup>32)</sup> 정춘근, 『대마리 역사 이야기』, 96쪽.

회하게 되었다.<sup>33)</sup> 입주 때 제공된 15대의 경운기는 경지 확장에 따르는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농지 개간에 요구되는 많은 비용으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부채를 짊어져야 했다.<sup>34)</sup>

마을 주민들의 황무지 개간은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로, 초기에 균등하게 분배되었던 경지 규모가 주민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졌다. 둘째, 주민들 사이에서 농지 교환과 분합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국방부에서 1976년 작성한 「수복지역 경작 및 입주 민원」에 따르면, 수복지역 토지는 입주영농자 상호 간에 매매 및 임대, 경작권 양도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영농의 효율성을 위해 경작지를 한데 모으고자 했고, 이로 인해 비공식적인 경작지 교환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sup>35)</sup>

군사적 안보의 맥락에서 대마리 주민들의 경험은 어떠했는가? 1967년 4월, 가입주가 이루어졌을 때, 대마리를 포함한 철원평야에는 특별한 방어용 군사시설이 없었다. 비무장지대에 허술한 목책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해야 했다. 비무장지대의 철책은 1967년 11월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대마리 일대는 1968년 1·21 사태 이후에 설치된 듯하다. 가장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된 시기는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이다. 주민들은 전쟁에 대비하여 현장을 지켰다. 이 사건 이후 1978년부터 철원평야를 가로지르는 대전차 방벽이 설치되었고, 이 때문에 대마리 경작지가 40만평 가량 수용되었다.

33) 엄대용, 「민북마을의 통제완화에 따른 사회·공간적 변화-철원군 대마리를 사례로-」, 31쪽.

34) 육군본부, 「민통선 북방 전략촌 입주자 실태」(1976).

35) 엄대용, 앞의 논문, 31쪽.

### Ⅲ.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와 그 요인

#### 1. 개척 장애물로서의 지뢰 문제

대마리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가장 크게 위협한 것은 지뢰였다. 이 지역에서 지뢰는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매설되었다. 첫 번째는 정전협정이 난항을 거듭하던 시기로, 당시 미군은 헬기를 이용해 M14 플라스틱 대인지뢰를 휴전선 일대에 대량 매설했다. 두 번째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했을 때로, 전방에 급하게 지뢰를 매설하였다.<sup>36)</sup> 이러한 연유로 지뢰지대 표시 및 관리는 매우 허술한 실정이었다.<sup>37)</sup>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마리 주민의 첫 번째 지뢰 사고는 1967년 4월 10일에 발생했다. 이어 1968년 2월 7일의 최초의 사망사고, 7월 10일의 무릎 절단사고가 발생했다. 초기 3년간 18명이 지뢰 사고를 당했고 이 중에서 절반이 숨졌다. 개간 과정에서 발생한 지뢰 문제는 입주민들에게 공포를 주었지만, 동시에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켰다. 입주 당시 군은 지뢰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를 주민 책임으로 전가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주민 상호 간의 배려가 없을 시 생활이 어려웠다. 신성순의 증언에 따르면 토지 분배 시 최초의 지뢰 사고를 당한 유철훈에게 A급 농지 3,000평을 분배하였다. 사망 사고를 당한 가족에게는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승계할 기회를 주었다. 1970년대 초부터 입주식에서 사망자를 기리는 위령제가 시작되었다.

36) 지뢰매설작업에 참여하였던 김화읍 생창리 주민 이을성의 증언, 2020.4.15.

37) 「대인지뢰 제거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오마이뉴스』, 2003년 7월 3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31429&CMPT\\_CD=SEARCH](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31429&CMPT_CD=SEARCH)>.

다른 전략촌보다도 대마리에서 지뢰 피해가 심각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대마리의 농경지는 북한 지역까지 이어져 있는 개활지여서 군사적 이유로 지뢰가 많이 매설된 지역이었다. 전선교착기 뿐 아니라 휴전 후에도 국군의 방어용 지뢰가 많이 매설되었고, 철책이 없었던 만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다량의 지뢰를 매설해놓았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sup>38)</sup> 둘째는 개간 작업에서 중장비 활용보다는 인력을 동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고, 당시 보급된 지뢰 탐지 장비가 라디오 부품, 철사, 대나무를 활용해 자체 제작했을 정도로 조악했기 때문이다. 대마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지뢰 'M14'와 'M16' 중 발목지뢰에 해당하는 M14 플라스틱 대인지뢰는 금속 성분이 적어 전문적 지뢰탐지기를 동원하더라도 탐지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9)</sup> 셋째는 당시 대마리 인근에 제대로 된 의료 시설이 없었고 지뢰 사고에 대한 군의 구체적인 처리 지침 역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처치의 부족으로 과다출혈이 일어나거나 장거리 병원 이송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확대되었다.

전략촌 중에서 대마리는 파주 금파리, 양구 해안면과 함께 지뢰사고가 많았던 지역이었지만, 지뢰 문제는 오랜 세월 공론화되지 못하고 묻혀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이 입주증을 수령할 때 지뢰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했기 때문이고, 또한 문제 제기로 인하여 군부대와 마찰을 빚을 때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도 민주화가 진전될 때까지는 지뢰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부정해왔다. 그 한 가지 예로 1997년 9월 1일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초안이 채택된 노르웨이

38) 정춘근, 『대마리 역사 이야기』, 158쪽. 그러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39)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녹색연합, 「한국지뢰실태조사보고서: 후방 36개 대인지뢰 매설지역 실태조사보고서」 (2001), 15쪽.

이 오슬로 국제회의에 참가했던 당시 한국측 대표는 “한국에는 대인지뢰로 인한 어떤 희생자도 존재하지 않으며, 비무장지대를 제외한 그 어떤 지역에도 대인지뢰를 매설해 놓지 않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sup>40)</sup>

그러나 이 발표는 한국의 시민사회를 자극하여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28개 시민단체가 1997년 11월 6일 한국 대인지뢰대책회의(KCBL)를 창립하고 정부 발표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민간인 지뢰피해실태를 조사하였다.<sup>41)</sup> 또한 이 모임은 ‘지뢰금지 국제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약칭 ICBL)을 이끌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조디 윌리엄스를 초청하여 1998년 2월 4일 파주 파평면 금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지뢰피해자들에게 의족을 선물하는 행사를 하여 한국의 지뢰피해문제를 국내외에 알렸다.<sup>42)</sup>

한국 대인지뢰대책회의는 2차 피해자 실태조사를 통해 철원의 생창리나 대마리에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진작가로 활동하던 이시우는 처음으로 대마리의 장동용을 만나 지뢰 피해의 실상을 듣고 사진을 찍었다.<sup>43)</sup> 이들은 1999년 6월, 실태조사보고서와 함께 사진집을 간행했다.<sup>44)</sup> 2001년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전방지역 뿐 아니라 후방지역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하였다. 후방 36개 지역에 약 65,000여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돼 있으며 그 관리 상태가 매우 열악해 지뢰유실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sup>45)</sup> 2003년 7월 2일, 국회에서 ‘대인지뢰 제거

40) 「지뢰폭발로 꿈 잃은 장애인에게 관심을...」 『에이블뉴스』, 2003년 7월 3일,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732>).

41)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지뢰피해의 현주소」(1999).

42) 인권운동사랑방, 「25년전 지뢰사고, 조만선씨의 비극 - ‘지뢰마을’ 금파리, 조디 윌리엄스 방문」 『인권하루소식』 1055호 (1998).

43) 이시우와의 2020년 3월 23일 전화 인터뷰.

44) 노윤미, 「피해보상운동 강력하게 벌이겠다」 『함께걸음』 1999년 6월호.

45)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녹색연합, 「한국지뢰실태조사보고서: 후방 36개 대인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가 열렸을 때,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지뢰피해자는 2천명 이상이며 군인 피해자는 민간인 피해자의 두 배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sup>46)</sup>

대마리에서 2005년까지 지뢰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10명, 다친 사람은 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리 마을 주민들이 뒤늦게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정부는 2011년 5월 26일 대마리 전략촌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지뢰사고를 당한 사람은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또는 피해상대를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민간인 피해자들은 그 시효가 만료되어 보상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sup>47)</sup>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인 2015년부터 민간인 지뢰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신청을 받아 최저 위로금 2,000만 원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 2. 토지 소유권 문제와 주민 연대

197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대마리는 새로운 문제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민북마을 일반의 골칫거리인 토지 소유권 문제가 부상하고, 자녀세대가 성장해 부모로부터 분가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대마리의 '마을 문제'에서 가장 먼저 불거진 것은 토지 소유권 분쟁이었다. 민북지역 토지의 소유권 분쟁은 196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1965년 언론 보도를 참조한다면, 당시 내무부에서도 지적공부의 복구가 미비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복구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지뢰 매설지역 실태조사보고서」.

46) 「대인지뢰 제거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오마이뉴스』.

47) 정춘근, 『대마리 역사 이야기』 2, 153쪽.

있다.<sup>48)</sup> 토지 개간이 마무리되고 황무지였던 땅이 농토로 제 기능을 하게 된 시점인 1970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분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대마리에서 처음으로 토지 소유권이 문제시되었던 것은 1972년 5월이었다. 한 지주가 대마리에 들어와 논에 줄을 쳤고,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은 마을 회관에서 밤샘 회의를 진행하여, 개간한 땅을 빼앗길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권리를 국가와 군(軍)으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마리 주민들은 군부대에 항의 차 방문을 하고 논의 금줄을 걷어낸 후 모내기를 하였다. 이후 지주가 의정부 지방법원에 토지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주민들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주민들은 회의록, 입주 관련 서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소명 활동을 하여 결국 이 사건은 지주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sup>49)</sup>

이 사건 이후 마을 주민들은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이어나갔다. 예컨대 마을 회의에서는 군부대에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요구,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인 토지 매수 금지, 토지 소유권 문제에 대한 마을 공동 대처, 토지 보호를 위한 집단 소송 제기, 소송 비용의 각출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행동 지침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주민들은 정치권을 겨냥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1973년 6월에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 다섯 명이 민북지역 시찰을 위하여 대마리를 방문하였을 때 대마리 주민들은 토지 소유권 분쟁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박용하를 대표로 한 148인이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975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역구 의원과 국무총리실에 해결방안 마련을 지시하

48) 『동아일보』 1965년 12월 4일.

49) 정춘근, 『대마리 역사 이야기』, 136쪽.

였으나 제출된 안에 대한 대통령 자신의 보류 판단으로 입법은 무산되었다. 주민들은 김재순 국회의장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철원군청의 공무원이 업무 협조를 위해 재정부에 파견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sup>50)</sup>

사실 1974년 9월, 청와대 사정담당특별보좌관이 민통선 지역 지주들과 개척민들 사이에서 벌어진 토지 분쟁의 전말을 담은 「전방지역 토지분쟁 정리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박 대통령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토지 소유자와 대마리 주민들의 갈등 양상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sup>51)</sup> 그 후 토지 소유자인 지윤전이 1976년 2월 주민들에게 “함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 9천 평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는 이를 알리기 위해 자신의 땅 위에도 경고판을 설치했는데, 대마리 주민들은 이를 부수고 소송 결과에 불복했다. 당시 정부는 전략촌 건설과정에서 이 지역의 토지소유권 문제를 간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송결과에 당황한 정부는 「민통선 북방토지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문제를 풀려고 시도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사인 간의 소유권 분쟁에 선불리 나서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1978년 5월의 「사정협의회 제안 자료」에는 “정부 시책에 의하여 설립된 전략촌이기는 하나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 간의 분쟁은 근본적으로 사인 간의 사법상 문제”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sup>52)</sup> 결국 주민들은 자신들이 개척한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주로부터 땅을 매입하거나 소작료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50) 위의 책, 138~141쪽.

51) 1978년 5월26일 행정조정실장이 국방부 장관과 지방재정국장에게 보낸 공문 「민통선 북방 지역의 영농 및 주거상의 문제점 검토(문서번호 국행이 100-147)」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김윤형 기자가 보도하였다. 김윤형, 「자력갱생, 그 잔인한 40년」.

52) 위의 글.

토지분쟁의 초기에는 이들 토지가 대부분 전쟁으로 인하여 ‘주인 없는 땅’이 되었고, 군 작전 지역에 포함돼 사실상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경작할 수 없었으며,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땅’이라는 점 때문에 경작자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정소송에서 소유권자가 잇달아 승소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의 토지분쟁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분쟁토지에 대해 “첫째, 군작전 지역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배제하려면 헌법정신에 기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둘째, 한국동란에 의한 점유권 이탈은 농지개혁법 상 불경농지(不耕農地)의 개념에 속하지 아니하며, 셋째, 군이나 행정당국에서 민통선지역의 유희지를 경작자에게 분배한 것은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소유권 자체를 부인하는 구속력은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정부는 1983년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지만, 소유자와 경작자 간의 분쟁은 끝이 없었다. 재건축 주민들은 토지 소유자와의 개별적인 토지 거래를 막고, 집단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이것은 대부분의 전략촌 주민들이 공유하는 경험이지만, 대마리의 경우 지뢰밭을 함께 일구어 농지를 마련했다는 ‘전우애’와 ‘개척정신’, 그리고 토지 소유권 분쟁 국면에서의 주민간 연대의식은 공동체의 활성화를 낳는 주요 요인이 되었고, 경지의 지속적 확장에 따른 소득 증대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고양시켰다. 이런 긍정적 요소들이 2000년 3월의 통제소 북상 국면에서 마을의 지속적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2002년의 대마리 토지 소유권은 81%가 입주민 소유, 19%가 임차지로 나타났다.<sup>53)</sup>

53) 철원군 농업정책과, 「대마리 토지 소유 현황」(2002); 엄대용, 「민북마을의 통제 완화에 따른 사회·공간적 변화 -철원군 대마리를 사례로-, 41쪽에서 재인용.

### 3. 마을의 확장과 ‘개척정신’의 계승

1970년대 초반에 조성된 전략촌 대부분이 경험한 것처럼 대마리도 1970년대 후반에 이르면 자녀들의 성장과 결혼, 경제적 안정화 등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고 마을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대마리는 초기 입주민들의 나이가 거의 30-40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자녀들의 나이 또한 비슷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자녀들의 결혼문제와 주택문제에 부딪쳤다. 청년들은 민간인통제구역에서 결혼대상자를 구하기 어려웠으며, 외부 여성들이 결혼하여 입주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배우자를 구하기 위하여 도시 공장지대로 나가야 했다. 그러나 이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비좁은 주택에서 부모와 동거하기는 어려웠다. 대마리 주민들은 1976년 9월, 결혼한 자녀 아홉 세대가 분가를 위해 새로운 가옥을 짓게 허가를 내려달라고 군부대에 요청하였다. 군부대가 이를 고심 끝에 수락하여 묘장국민학교 옆에 아홉 세대가 새 가옥을 짓고 살게 되었는데 이곳을 ‘새마을’이라고 불렀다. 다른 주민들도 분가를 요구하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요구가 전국적으로 행해졌던 새마을사업과 맞물려 대마리 내에서 대규모 주택 개량 사업의 형태로 나타났다.<sup>54)</sup> 흥미롭게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 사업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안보강화사업과의 교환의 성격을 지닌다.

1978년부터 1979년까지 대마리를 포함한 철원의 접경지역에 대전차 방벽공사가 이루어졌다. 3군사령부와 5사단 관련자들이 이를 위해 마을을 방문했고, 강원도청이나 철원군청 관계자들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대마리 주민들의 농지 중에서 방벽 건설에 필요한 농지 약 45만평을 수용하고 또 새로운 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주민들은 토

<sup>54)</sup> 위의 글, 31~32쪽.

지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수용된 농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그 대신 1979년 ‘민북개발사업(또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하면서 주택건설에 보조를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요구에 따른 하향식 사업이었는데, 이를 통해 대마리의 주택 188동이 새롭게 건설되었다. 사업비는 정부와 주민이 대략 1:3의 비율로 부담하였는데,<sup>55)</sup> 이는 재건축들의 평균치에 가깝다.<sup>56)</sup>

이 사업은 대마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만 목적을 둔 것은 아니라 대북 심리전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해서 외관 개선에 중점이 두어졌다. 북한에서 잘 보이도록 슬레이트 지붕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색깔을 하였으며, 주택 규모를 15평~20평으로 확장하였다.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선 곳을 모시울 동네와 개울동네라고 명명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직경 500m로 한정되었던 마을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주택건설 사업자가 외부에서 선택되었고, 일시적인 대규모 공사로 이루어져 부실공사 시비가 나타났다.

〈그림 3-1〉 확장된 대마리의 모습(1979)



출처: 엄대용, 「민북마을의 통제완화에 따른 사회·공간적 변화 - 철원군 대마리를 사례로-」, 32쪽

55) 정부지원 137,550,000원, 주민부담 403,353,000원, 계 540,903,000원. 철원군 농업정책과, 「민통선북방지역 마을현황」.

56) 위의 글.

이 시기에 대마리에는 주택 개량 뿐 아니라 마을회관 및 공동 창고 개 보수, 어린이 놀이터, 경지정리, 마을 안길 정비, 하수구 정비, 간이 상수도 등이 설치되었다.<sup>57)</sup> 마을이 확장되면서, 1981년 7월 8일 대마리는 1리와 2리로 분구되었다. 그러나 마을은 실제로 과거처럼 하나로 움직였다. 주민들은 한 명의 이장을 선출하고, 그는 자신의 파트너를 다른 구역의 이장으로 위촉하여 함께 마을을 운영했다.

대마리의 1970년대의 발전은 경지면적의 확대와 함께 인구의 증가로 나타난다, 경지면적이 355ha에서 800여ha로 증가한 만큼 가구수도 1983년에 이르러 150세대에서 192세대로 증가하였고, 인구는 830명에서 1,026명으로 증가했다.<sup>58)</sup> 호당 경지구모의 확대는 기계화 영농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였고, 상대적 고소득으로 연결되어 2세대들의 유출을 막았다. 2000년 당시 호당 경지면적은 3.7ha로, 일반농가의 세배정도였다.

대마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 발전을 하게 된 1990년 4월, 최초의 입주자들은 입주자동지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이동륜 회장, 이원용 부회장, 신성순 총무, 10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개척기념비 건립, 입주이후의 대마리 역사 편찬, 차세대 장학사업 등을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들은 개척기념비 건설을 위해 마을의 중심부에 있는 토지를 기부 받아 입주 22주년인 1990년 8월 30일, '개척비'를 건립하였다. 기념비의 전면에는 1967년 4월 10일의 가입주와 최초 입주자들의 생존 상황, 희생자 위령제로서의 백마제 개최, 휴전선까지 뛰는 마라톤 경기를 백두산까지 늘리고 싶은 희망을 새겨 넣었다.<sup>59)</sup> 측면에는 최초 입주민 세대주 150명의 이름

57) 이 개발사업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주택 자금과 자재 부족 뿐 아니라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춘근, 『대마리 역사 이야기』, 113쪽.

58) 철원군 농업정책과, 「재건촌 현황」, 1983.

59) 이 비문은 김호길이 작성하였다. 그는 1990년 당시 5사단장으로 백마고지 전적 공원을 조성한 김봉찬장군과 ROTC동기였다고 한다.

과 함께 “피 흘려 찾은 땅, 피땀 흘려 개척했다”는 문구를 새겼다.<sup>60)</sup>

입주자동지회가 자신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개척비를 특별히 1990년에 세운 이유가 있는가? 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가설로 외부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당시 민북마을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런 기념비로 표현한 것은 1989년 철원군 근남면 마현1리 주민들이 입주기념비를 세운 것이 최초였다.<sup>61)</sup> 대마리가 이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부의 강렬한 요구도 있었다. 1990년을 전후하여 마을의 리더십이 2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준비하기 시작하였고,<sup>62)</sup> 초기 입주자중에서 사망자들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회원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들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했다. 당시 85명이 생존한 상태였다. 이들은 개척비를 세우고 매년 회비를 걷어 묘장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우수 졸업생을 시상하였다. 입주자동지회는 2008년 회원 감소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폐지하였고, 2013년부터는 회원 사망 후 부인이나 직계자녀가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 4. 백마고지 전투 기억의 활용

백마고지 전투는 1952년 10월, 대마리에서 북쪽으로 3km 떨어진 높이 395m의 고지를 두고 한국군 제9사단과 중국인민지원군 제38군이 쟁탈전을 벌여 열흘 간 17,000명 가량의 사상자를 낳은 전투이다. 한국전쟁 후반의 유명한 전투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가 많았기 때문에, 1957년 7월,

<sup>60)</sup> 이 명단의 4조에는 9명만이 새겨져 있다.

<sup>61)</sup> 마현1리는 사하라 태풍의 피해를 받은 울진군 근남면 주민들 66세대를 1960년 4월에 집단 이주시켜 만든 피난민촌이었다. 이들은 1989년 입주기념비를 세웠다. 울진군은 1963년 강원도에서 경북으로 이관되었다.

<sup>62)</sup> 이 무렵에 처음으로 2세대가 이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9사단에서 이 전투를 기념하는 ‘백마고지전투 전적비’를 철원 동송읍의 이평리에 세웠다.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백마고지 정상에는 ‘백마고지 호국영령 충혼비’가 세워져 있는데, 관광객들은 이를 볼 수 없다.

1985년 6월 6일 현충일을 기하여 대마리 주민들은 이 지역을 관할하는 5사단과 함께 백마고지가 바라보이는 작은 언덕에 백마고지 전투의 희생자 위령비를 세웠다. 어떻게 주민들이 위령비 건립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신성순의 증언에 따르면, 그것은 대마리 입주 기념식에서의 희생자 위령에서 유래한다. 대마리 주민들은 1968년 입주 이후 해마다 입주기념식을 관내 유지와 군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거행하여 왔는데, 1970년대 초부터 초기 개척과정에서 희생된 동료들과 함께 백마고지 전투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위령제를 지냈다. 제단에는 이들의 신위가 배치되었고, 주민대표, 군수, 군 지휘관들이 차례로 헌화하였다. 1984년 이 입주식에 참석한 신말업 5사단장이 어떻게 대마리 주민들이 국군장병 희생자를 위령하게 되었는가를 묻자, 주민들이 그 연유와 함께 자신들이 모금하여 백마고지 위령비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사단장은 이에 감동하여 위령비 건립에 5사단이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부지를 물색하게 되었다.<sup>63)</sup>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의 전적공원 부지가 정해졌는데, 원래 이곳은 전주 이씨 종친 묘지가 있던 곳으로, 대마리 주민이면서 전주 이씨였던 이순환이 종친회를 설득하여 묘지를 동쪽으로 이장하고 위령비 건립 부지를 확보해주었다.<sup>64)</sup>

이 위령비는 전투 기념보다는 희생자 추모에 방점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위령 대상으로 “국군 844위”와 “중공군 8,234위”를 병기하였다. 위령비의 후면에는 모운숙의 시를 새겼다. 중국과의 특별한 화해도 없었고, 한

<sup>63)</sup> 신성순의 2020년 3월 20일 구술.

<sup>64)</sup> 안타깝게도 이순환은 이후 지뢰사고로 사망하였다.

중수교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점임을 감안하면, 전면의 비문은 파격이 었다. 과거의 적대와 무관하게 추모 중심의 위령비를 세운 대마리 주민들의 뜻은 곧 안보관광의 맥락에서 이곳을 방문한 일부 관광객들의 시선에 거슬렸다. 많은 항의가 전달되었고, 제5사단은 1989년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령비의 문구를 교체하였다.<sup>65)</sup>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조국의 자유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이 격전지에서 장렬히 산화하신 용사들의  
숭고한 애국충정은 명예롭고 백마혼은 무궁하리라  
장하다 임이시여 고히 잠드소서”

1990년 5월, 육군은 전적지개발계획에 따라 이곳에 새로운 전적공원을 조성하였다. 제5사단의 주도 하에 5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7개월간의 공사를 거치는 등 이전의 기념비 건립과는 다른 큰 규모의 사업이었다. 1985년 위령비가 희생자 추모라는 단일한 목적 하에 세워졌다면, 1990년의 전적공원은 ‘회고의 장’, ‘기념의 장’, 그리고 ‘다짐의 장’이라는 3단 구성을 통해 추모, 기념, 교육적 기능을 아우르는 종합적 기념을 시도했다.<sup>66)</sup> 회고의 장에는 이평리에 있던 백마고지 전투전적비를 옮겨오고, 또 새롭게 백마고지 전적지비를 세웠다. 기념의 장에는 1985년에 세

65) 최초의 동판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일부 주민은 비문을 군에서 깎았다고 말하지만, 일부 주민은 백마부대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66) 전적공원의 ‘건립취지문’에는 “후손들에게 백마고지 전투에서의 승리와 교훈을 영원히 전하고자”라는 구절이 등장하고, 동일 부지에 세워진 1994년 전승비에는 “대승을 거듭으로써 (...) 조국을 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는 건립주체인 육군의 백마고지에 대한 공식적 기억이 구체화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주민들은 위령에 중점을 둔 반면, 군은 전승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운 백마고지위령비를 중심으로 삼고,<sup>67)</sup> 그 뒤에 백마고지전투 기념관을 세워 당시 전투를 지휘한 9사단장 김종오 장군의 유품과 관련 사진들을 전시하였다. 다시 그 뒤에는 22.5m 높이의 전적기념비를 세웠다. 다짐의 장에는 상승각을 세우고 그 안에 통일을 기원하는 종을 설치하였다. 준공식 역시 이종구 참모총장, 백마부대장, 열쇠부대장 등 현역 장성과 한국전쟁 당시의 백마부대 대대장이었던 김영선, 백마고지참전전우회, 유가족, 대마리 주민, 열쇠부대 장병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성대하게 진행되었다.<sup>68)</sup>

〈그림 3-2〉 백마고지 위령비와 전적기념비



출처: 필자촬영

67) 2000년에 위령비 전면에 백마고지 전투 전사자비(白馬高地戰鬪戰死者碑)를 세웠다.

68) 『매일경제』 1990년 5월 3일.

〈그림 3-3〉 백마고지 전적지비



출처: 필자촬영

대마리 주민들은 자신들이 관여한 위령비의 문구가 손상된 것을 유감스럽게 여겼으나, 백마고지 전적공원 조성이 안보관광객을 불러들임으로써 마을의 지명도를 높이고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하였다. 대마리의 한 주민은 군의 허가를 받아 1991년 휴게소 매점을 설치하였고, 마을 부녀회도 1995년 ‘대마리 상설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오대쌀을 비롯한 농산물을 판매했다.<sup>69)</sup> 백마고지 전적공원으로 가는 길목에 1994년 처음으로 식당이 자리잡았다. 그러나 1996년에 덮친 수해로 인하여 농산물 판매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sup>70)</sup>

백마고지 전적공원이 조성된 후 1994년 10월 백마부대원들은 회고의 장의 오른쪽에 다시 백마고지 전승비를 세웠다. 백마고지전투 기념비가 전적비, 위령비, 전적지비를 거쳐 전승비로 나타난 것이다. 대마리 주민

<sup>69)</sup> 엄대용, 앞의 논문, 69쪽.

<sup>70)</sup> 이화배 전 부녀회장의 2020년 3월 20일 구술.

들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백마고지 전투 기억을 마을 정체성 재구성에 활용하였다. 2000년 민통선 해제와 함께 백마고지의 연간 방문객이 40% 이상 증가하자 대마리 주민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백마고지를 마을 정체성에 결부시키기 시작했다. 2000년 마을 입구에 표지석을 건립하면서, “미래의 땅 청정의 고장 이곳 철원 대마리 백마고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를 써넣었다. 백마고지를 마을 정체성 재구성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었다. 나아가 마을에서 생산하는 오대쌀 포장지에도 “대마리 백마고지”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 IV. 마을 정체성의 재구성

### 1. 통제소 복상과 마을 발전 전략의 모색

대마리는 2000년 3월 민북마을에서 벗어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 접경지역의 민통선은 1989년 연천에서 최초로 조정되기 시작하였는데, 철원은 1992년 최초로 조정되었다.<sup>71)</sup> 대마리 주민들의 민통선 출입문제에서 최초의 변화는 1988년 5월부터 출입허가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8년 1월 군사시설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전환되어, 통금

<sup>71)</sup> 민북마을은 1987년까지 110개의 입주마을이 있었고, 출입영농이 이루어지는 103개의 미입주마을이 있었는데, 1996년에 이르러 입주마을 74개, 미입주마을 75개로 축소되었다. 강원도의 경우, 30개의 입주마을, 52개의 미입주마을이 1996년에 각각 19개, 37개로 축소되었다. 민통선구역에서 출입영농이 새롭게 허가되면 미입주마을이 증가하기도 한다.

시간이 사라졌으며, 1999년 3월, 출입통제가 해제되었고, 2000년 3월에는 마을 입구의 검문소가 마을 뒤로 복상하였다.

대마리가 민북마을에서 해제되면서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외부인의 마을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대마리를 찾는 사람은 물론이고, 백마고지를 구경하려는 관광객이 훨씬 편리하게 마을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관광객이 1999년 207,306명에서 2000년 289,734명으로 1년 만에 39.8% 증가했다.<sup>72)</sup> 최초의 재건촌으로 시작하여 30년 넘는 세월 동안 대다수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였던 대마리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마을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엄대용이 2001년 마을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한국농민들이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우려를 많이 하고 있을 때 대마리 주민들은 마을의 미래를 이와 달리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주민의 과반수는 마을의 발전방향을 청정농업에서 찾았고, 복합영농이나 관광농업으로 가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도 상당했다.<sup>73)</sup>

이 시기의 중요한 마을 내부의 변화는 1세대로부터 2세대로 리더십이 이전한 것이다. 입주초기부터 마을을 이끌어오던 1세대들이 대체로 1990년대 중반에 퇴장하고, 1.5세대를 거쳐 2000년 무렵에는 2세대들이 이장을 맡아 마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대마리의 인구는 감소했으나 세대수는 줄지 않았다. 2001년 당시 대마리는 총 239세대였는데, 여기에는 1세대 98가구, 2세대 95가구, 후발입주세대 46가구가 있었다. 여기에서 1세대는 여성을 포함하는데, 남성으로 한정하면 60-70세대였다.<sup>74)</sup>

대마리는 1999년 강원도에서 추진한 ‘새농촌건설운동’ 사업에 따라 ‘새농촌건설운동 추진단’을 조직하였다. 당시 이 조직은 인원 구성을 갖췄

72) 백마고지 관리소, 「백마고지 관광객 현황」 (2001).

73) 엄대용, 앞의 논문, 59쪽.

74) 위의 논문. 38쪽.

을 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나, 통제소 복상 이후로 당시 대마 1리 마을이장 김동일의 리더십 아래 마을 발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된다. 추진단은 매월 정기 회의를 개최해 사업 계획, 사업 추진주체 설정, 사업성과 평가를 논의했고, ‘청정농업’ 및 ‘관광농업’과 관련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입안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추진단은 ‘마을 알리기’, ‘마을역사 찾기’,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등의 구체적 과제를 설정하고, 새농촌건설운동 사업을 비롯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농촌 지원 사업에 다수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노력들이 마을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바탕이 되었다.<sup>75)</sup>

2000년에는 대마리 청년회에서 마을의 표지석을 새롭게 세웠다. 이 표지석은 향군촌이라는 자기정체성과 함께 미래의 청정마을로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는데, 역대 마을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를 비롯한 1세대 주민들의 명단과 함께 2세대의 마을 전통의 계승발전 의지를 표현했다. 대마리는 군이 규정한 전략촌, 언론과 철원군청이 부여한 재건촌과 함께 주민들 스스로가 규정한 향군촌이라는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매년 8월 30일의 입주기념식을 이어가면서, ‘1세대와의 대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해 개척의 경험을 전수하였다. 2000년 이후에도 이장과 반장을 중심으로, 청년회, 장년회, 중년회, 노인회, 부녀회 등 연령대·성별 조직과 생산작물별 작목반 체계가 유지되었다.<sup>76)</sup>

75) 위의 논문, 64쪽.

76) 위의 논문, 65~66쪽.

## 2. 철새와 오대쌀: 생태·친환경 이미지 구축

새로운 마을 발전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단이라는 체계적인 실무 조직을 갖춘 대마리는 향군마을이라는 기존의 정체성을 생태·관광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농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대마리는 철새, 오대쌀, 백마고지와 같은 철원군의 대표적 상징물들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관전리 노동당사, 상허 이태준과 같이 반공주의적 정서상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역사적 상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수용하였다.

〈그림 4-1〉 대마리 마을 로고



〈그림 4-2〉 대마리 생산 오대쌀 포장지



대마리는 1977-79년 기간에 농업기계화시범단지가 되었다. 이의 부수적 효과가 철새들의 먹이가 풍부해졌다는 것이다. 낙곡이 많았기 때문이다. 1992년 철원평야에서 다수의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조류학자 이정우에 의해 재발견된 후,<sup>77)</sup> 1994년 환경부에 의해 대마리가 청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 이듬해에 환경부가 철원평야를 두루미, 재두루미 등 철새의

77) 『한겨레』 1992년 12월 25일.

월동지역이라는 점을 이유로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주민들은 토지용도변경이나 건축규제를 우려하여 이에 반대하였으며, 결국 계획이 철회되었다.<sup>78)</sup> 이 경험은 대마리 주민들에게 인식의 변화를 초래했다. 주민들은 정부의 규제 대신 자율적으로 환경 보전 노력에 나서기 시작했고, 철새 홍보를 통해 자신들이 생산한 쌀이 친환경 상품이라는 것을 알리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철새를 통한 생태·친환경 이미지의 구축이 농업과 관광산업에서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마리가 철새 관련 친환경 이미지를 갖추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은 바로 2003년 ‘두루미평화마을’ 정보화마을 선정사업이었다. 당시 대마리는 행정자치부가 정보센터·인터넷망 구축,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 인프라를 제공하는 정보화마을 사업에서 ‘철새마을’을 주제로 한 양지리와의 경쟁 끝에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대마리는 농산물 온라인 판매를 지원 받았고, 또 두루미 마을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활용할 수 있었다. 같은 해 대마리는 새로운 농어촌건설사업 지원금을 바탕으로 체험프로그램, 숙박시설, 공동 식사가 가능한 두루미평화관을 건립하며 마을의 이미지 형성에 주력했다.<sup>79)</sup> 마을 로고에 두루미를 새로 그려 넣기도 했다.

대마리 주민들은 정부의 자연생태계보호지역 지정은 거부했지만, 철새 서식지 보존과 관광업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해 벼짚을 소 사료용으로 판매하는 대신 논에 펼쳐놓음으로써 두루미에게 먹이를 제공했고, 수확이 끝난 논에 물을 채우고 우렁이를 키우는 무논 조성 사업을 통해 두루

78) 엄대용, 「민북마을의 통제완화에 따른 사회·공간적 변화-철원군 대마리를 사례로-」, 51쪽.

79) 최성록, 「DMZ일원 국가사업에 있어 주민참여 현황과 과제」 『지방정부연구』 제15권 1호 (2011), 173쪽.

미의 서식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두루미가 일본으로의 남하시기를 늦춰 개체수가 증가하였다.<sup>80)</sup>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전부 철새의 도래를 반갑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미미하거나, 벼짚 존치, 무논 조성 등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환경보호 조치로 인해 사냥이 금지된 채 먹이가 계속 증가하자 기러기 등 일부 철새가 텃새화해 6월까지 떠나지 않으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sup>81)</sup>

대마리를 비롯한 철원 평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쌀의 브랜드화였다. 원래 대마리에서 경작한 쌀은 옥우라는 품종이었다. 오대산에서 이름을 따와 명명된 오대쌀은 1981~82년 지역적응시험을 거친 후 1984년 “병충해, 냉해에 강하고 소출이 많다”<sup>82)</sup>는 장점을 바탕으로 철원 일대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다. 바로 그 다음해인 1985년, 오대쌀은 쌀의 질과 추운 기후로 인해 농약 사용이 적다는 친환경 이미지를 바탕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sup>83)</sup> 대마리 농민들은 친환경 이미지가 가져오는 부가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농법을 시도하는 데 앞장섰다. 1991년 9개 농가가 유기농 작목반을 조직한 것을 시작으로, 가구당 500kg의 퇴비를 생산하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유기농업 현장 견학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1995년부터 백마고지의 매점을 운영하던 주민은 같은 장소에서 쌀 판매를 시작했고, 이후 주문판매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민통선 해제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자 부녀회와 작목반이 휴게소 앞에 별도의 판매장을 설치해 쌀을 비롯해 꿀, 참깨, 팥 등의 잡곡을 판매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대마리에서 생산된 유기농 쌀은 타

80) 『서울신문』 2004년 8월 24일.

81) 『한겨레』 2018년 1월 28일.

82) 『강원일보』 1984년 11월 15일.

83) 『철원일보』 2010년 7월 29일.

지역의 일반 쌀에 비해 한 가마니당 5만 원 이상의 가격을 더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량 납품·매수되고 있다. 대마리는 200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에 선정되어 ‘오대미마을’이라는 상징적 이름까지 갖게 되었다.<sup>84)</sup> 2012년에는 경원선 복원과 함께 백마고지역이 설치되자 역사 1층에 대마리 농산물 판매장이 설치되었고, 2017년 노동당사 앞의 ‘철원 토요일장터’, 2019년 철원군 직영 로컬푸드마켓 ‘오늘의 농부’ 등 다양한 판매처가 확보되고 있다.

### 3. 두루미평화관: 노동당사 모델의 차용

대마리는 2003년 강원도에서 진행한 새농어촌건설사업에 선정되어 수령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노동당사의 외관을 본 딴 두루미평화관을 건립했다. 그 용도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 식사 제공 혹은 다양한 행사 및 세미나 개최였다. 노동당사가 안보관광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하고 반공 사상을 강화시키는 장치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sup>85)</sup> 그리고 5km 가량 떨어진 관전리에 위치해 있어 행정구역상 대마리 소재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마리 주민들이 노동당사를 모델로 하여 마을 공용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특기할만하다.

84) 『강원일보』 2005년 8월 20일.

85) 박은영, 「기억의 장소, 철원 노동당사 폐허」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47권 (2017), 60쪽.

〈그림 4-3〉 노동당사



〈그림 4-4〉 두루미평화관



출처: 필자 촬영

1980년대에 형성된 철원의 안보관광에서 노동당사는 ‘북괴의 만행’을 증거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1946년 이 건물을 건축할 때 북한 당국이 마을별 할당액을 배정하였다거나 주민들의 노동력 동원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외에 이 건물의 지하실에서 전쟁기간 동안 많은 우익 인사들이 학살되었다는 담론들이 만들어졌고, 이를 강조하는 플래카드가 걸리기도 했다. 이 건물의 용도가 바뀌기 시작한 계기는 1994년 당시에 새로운 문화적 현상을 몰고 온 가수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라는 뮤직 비디오가 이 곳을 배경으로 촬영된 것이었다.<sup>86)</sup> 이후 2000년 10월 ‘ASEM 2000’을 계기로 노동당사에서 이루어진 국내외 비정부기구 회원들의 ‘평화지대 선언문’ 낭독, 이시우나 이해용을 비롯한 사진작가들의 노동당사 사진 작업 등을 통해, 공산정권의 횡포라는 기존의 반공 서사에서 벗어나 노동당사를 전쟁, 남북 분단, 민통선의 상흔을 간직한 역사적 기념비로서 재인식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2년 문화재청은 ‘국가 등록문화재 제22호’로 지정했으며, 이에 대해 “분단의 비극과 전쟁의 참화를 보여”<sup>87)</sup>준다는 적

<sup>86)</sup> Jung Keun-sik, “On the Ruins: Forgetting and Awakening Korean War Memories at Cheorwon”.

극적인 평가를 내렸다. 2010년에는 철원군이 이 주변지역을 공원으로 단장하였다.

대마리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두루미평화관으로 명명하고 이 건물의 설계모형을 노동당사로부터 가져왔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는 마을의 정체성을 두루미 및 평화에 연결시키고 있었다는 점이다. 2003년 두루미라는 상징은 인근 재건촌인 양지리와 서로 자기의 자원으로 전유하려는 자원이었다. 대마리가 두루미평화관을 건설할 때 양지리는 두루미펜션을 건설하여 생태관광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둘째, 당시 대마리의 마을회관이 노동당사로부터 건축모형을 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을주민들이 개방적이었다는 것이다. 김동일을 비롯한 대마리의 2세대들이 이를 과감히 수용했는데, 이는 철원읍의 역사문화적 유산을 대마리가 다른 마을보다 먼저 끌어안는 것을 의미했다.<sup>88)</sup> 이들은 이를 통해 마을 이미지 제고와 함께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했다. 대마리 주민들은 백마고지 안보관광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자원들이 마을 관광사업 진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던 노동당사를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수용한 것이다.

#### 4. 상허 이태준 꺼안기

철원군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전유하려는 대마리의 발전 전략은 철원군 출신 소설가 상허 이태준(1904~?)의 기념사업과 만나게

87) 문화재청, 「한국의 근대문화유산-철원 노동당사」, 2005년 4월 6일, ([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11&bbsId=BBSMSTR\\_1002&mn](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11&bbsId=BBSMSTR_1002&mn)).

88) 필자가 이를 주도한 마을 지도자 김동일에게 어떻게 이 건물의 모델로 노동당사를 차용했는가를 물었을 때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지만, 마을의 1세대 원로인 신성순에게 물었을 때, 자신은 개인적으로 철원읍 화지리에 거주하는 D일보 철원보급소장으로 일하던 한 은퇴 교사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된다. 이태준은 묘장면 산명리에서 태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후,<sup>89)</sup> 대마리 용담 마을의 봉명학교를 다녔으며, 그 후 서울의 휘문학교에서 수학하였다.<sup>90)</sup> 그는 1925년 단편 ‘오몽녀’로 등단하였고, 1939년 구인회의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 그는 철원을 배경으로 하는 단편소설을 많이 남겼는데, 특히 ‘해방전후’가 유명하다. 이태준은 8·15해방 후 임화·김남천 등과 조선문학건설본부를 조직하여 활동하다 월북하여 1947년 방소문화사절단의 일원으로 소련기행에 나섰고, 6·25전쟁 때는 북한의 중군작가로 참가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에 숙청당했다.

이태준은 1988년 한국에서 해금되었고, 1994년 그의 탄생 90주년을 앞두고 그의 문학세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철원문학회가 1993년 야유회를 가게 되었을 때, 이 문학회의 중심인물이었던 정춘근은 이태준의 고향마을인 울리리 용담에 가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1995년 7월 15일 철원문학회에서 용담마을 터에 ‘철원 출신 한국 단편소설의 완성자, 이태준 생가터’라는 표지판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공인받지 않은 것이었다.

그 후 이태준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2003년에 민족문학작가회의와 대산문화재단, 철원문학회가 함께 ‘이태준 탄생100주년기념사업회’를 발족했다. 이 기념사업회는 그의 고향인 철원에 이태준 문학비를 세우려고 시도하였으나 설립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웠다.<sup>91)</sup> 철원군 관계자의 장소 제공 약속도 있었으나 문제는 이태준에 대한 철원군민의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데에 있었다. 특히 이태준의 월북 경력이 문제가 되었다. 철원군

89) 그는 9세에 고아가 되었으며, 가족적인 이유로 친족들로부터 거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90) 이 학교는 이태준의 당숙인 이봉하가 세웠다. 1983년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그의 자손들이 약 18만여 평에 이르는 토지를 찾아 매각하였다고 한다.

91) 『강원일보』 2004년 6월 21일.

관계자는 비문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일부 문장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철원 출신 시인이기도 한 민영 기념사업회 회장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김화 농민회 사무국장이던 남철희가 대마리의 회원인 김용만에게 이 문학비 건설의 의미를 설명하였고, 대마리 주민들은 김용만의 제안에 따라 이 문제를 논의하여 문학비와 흉상을 세우는 것에 동의하였다.

2004년 10월, 이태준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마리에서 상허 문학제가 열렸다. 민족문학작가회의와 대산문화재단이 함께 연 이날 행사는 백마고지 위령비가 바라보이는 대마리 두루미평화관 광장에서 문학비와 흉상 제막식에 이어 추모시 낭송, 오우열 시인의 진혼굿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sup>92)</sup> 민족문학작가회의 강원지회의 이사로 있었던 철원의 시인 정춘근이 상허문학제 개최와 문학비 및 흉상 제막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대마리 주민들이 협조하여 이태준 문학제와 문학비 제막식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비록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대마리는 이렇게 이태준을 자신의 자산의 일부로 끌어들었다. 이태준문학제는 이후 계속 대마리의 두루미평화관에서 개최되었고, 문학관광의 장소가 되었다.

대마리의 이태준 켜안기는 2004년 그의 문학비를 대마리 두루미 평화관 앞뜰에 세우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이것이 철원에서의 그에 대한 평가의 최종판은 아니었다. 2007년 대마리에 경원선 종점 역이 건설될 당시에 '이태준역'이 후보에 올랐다. 이 복원사업은 2007년 착공하여 2012년 완공된 것으로,<sup>93)</sup>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의 결실이었

92)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 2005년도 제18차 정기총회 자료집」 참고. 문학비 앞면에는 “상허 이태준 문학비”라는 글자가, 뒷면에는 이태준의 단편 「고향」에서 발췌된 문장이 새겨져 있다.

93) 「신탄리~철원 철도복원구간 신설역명 ‘백마고지역’ 선정」 『중앙일보』 (온라인), 2012년 9월 13일, <<https://news.joins.com/article/9320582>>.

다. 대마리에 위치하게 된 역의 명칭은 경원선의 종점역이었던 만큼 그 상징성이 큰 것이어서 경원선 복원 공사가 결정된 이후부터 철원군 지역 사회의 쟁점이 되었고, 많은 의견 대립이 발생했다. 가장 먼저 제안된 것은 철원이 상허 이태준의 고향이자 현재 대마리 4반에 해당하는 용담마을의 홍보 효과를 겨냥하여 이태준역으로 하자는 것이었다.<sup>94)</sup> 하지만 철원 주민들이 상허 이태준의 월북 전력을 문제시하면서 상황이 어렵게 되

〈그림 4-5〉 이태준 문학비 및 흉상



출처: 필자촬영

었다. 군(軍)의 반대도 있었다.

‘이태준역’의 무산 이후 제안되었던 것은 ‘철원역’이었다. 이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철원군에 기차역이 없었기 때문에 제시될 수 있는 것이었으나, 대마리 외의 철원 주민들은 옛 철원역에 다시 지어질 역만이 ‘철원역’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반대하였다. 철원에서 ‘철원역’이라는 이름은 소중하게 인식되는 문화적 자원이라는 사실이 이를 통해 드러났다. 이는 대마리가 과거의 철원이 가진 역사문화적 상징을 전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마리의 이태준 끼안기는 일단 성공했지만, ‘수복지구’ 철원에 존재하는 냉전적 분단의식은 상당히 두터운 것이어서 이를 흔쾌하게 받아들인

94) 『강원일보』 2007년 6월 21일.

것은 아니다. 상허학회의 중심활동가였던 이병렬은 2013년 문학기행을 한 후 “수복지구 철원 주민들의 정서를 새삼 실감”했다고 밝혔다. ‘상허 이태준 문학비’가 철원에서 거의 홍보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sup>95)</sup>

〈그림 4-6〉 촌뜨기길 종합안내도



출처: 필자촬영

관전리의 노동당사 앞에 2016년 조성된 총 길이 5.4km의 ‘촌뜨기길’ 역시 이태준에 대한 관심의 산물이었다. 이태준이 『농민순보』에 1934년 발표한 단편소설 「촌뜨기」에 등장하는 길을 복원한 것으로 시인 정춘근이 기획하고, 철원군청과 한국예총 철원지회가 함께 조성하였다.<sup>96)</sup> 2010년 노동당사 주변이 정비되어 공원으로 조성될 때 그의 작품 「지뢰꽃」을 새긴 시비가 건립되었다. 그러나 철원군이 진행하고 있는 ‘근대문화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이태준 문학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2017년 최종적으로는 역명 공모와 철원 주민 투표를 통해 ‘백마고지역’

95) 이병렬, 「상허 이태준 문학비 유감」, 2013년 7월 23일, <<http://lby56.blog.me/150172437252>>.

96) 『교수신문』 2019년 4월 26일.

이 선정되었다.<sup>97)</sup>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인근에 백마고지 전적공원이 위치해 있고, 이곳이 군(郡) 차원의 명소인 만큼 철원군을 일반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역 소재지인 대마리 주민들의 이해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명칭에 대해 대마리 주민들이 모두 동의를 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기차역명이 소재지 명칭을 따르므로 이 역 또한 대마리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이 역 명칭을 둘러싼 지방정치에서 군사적 유산, 문화적 유산, 그리고 마을의 토착주의적 이해가 충돌하였고, 여전히 전자가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최초의 접경지역 전략촌이자 재건촌이었던 대마리는 황무지의 공동 개간과 토지소유권 집단 투쟁을 통해 공동체적 발전의 기초를 다졌고, 2000년 민통선의 북상을 계기로 새로운 마을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감으로써 철원군의 대표적인 생태·관광마을로 발전했다.

대마리는 철원의 접경지역에 속한 지역의 이름이자 한국전쟁으로 사라졌다가 재건된 마을의 명칭이기도 하다. 대마리의 가장 큰 특징은 초기 입주민 모두가 향군 출신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연령과 경험을 가진 집단이었다는 점이다. 접경지역의 전략촌이 모두 재건촌의 성격을 가졌

97) 「[역명 탐구 9] 한민족의 비극을 담은 역명, 백마고지역」 『레일뉴스』, 2015년 5월 2일, <<http://www.itrailnews.co.kr/news/article.html?no=17398>>.

다는 것은 마을사적 맥락에서는 전쟁 전후의 연속과 단절의 시각에서 이들을 바라보도록 유도하는데, 향군 중심의 동원형 전략촌은 초기 입주자 구성에서 원주민 비율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절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전략촌은 모두 1960년대의 식량증산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잠재적 농지들을 활용하려는 정책의 산물이지만, 그것의 형성과정과 입주민의 구성에 주목한다면 보다 군사적인 ‘동원형 전략촌’과 출입영농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영농중심형 전략촌’으로 구분된다.<sup>98)</sup> 대마리는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양지리나 정연리 등은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 국가개입을 강화하면서 양자를 절충한 것이 통일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전략촌 연구는 이런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마리는 다른 재건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확장 가능성이 큰 장소에 자리잡았다. 또한 마을 규모가 컸을 뿐 아니라 최초의 전략촌 프로젝트여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거듭된 개간으로 경지 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는 점이 마을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대마리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과거의 유명한 전적지였던 백마고지 및 구 철원의 중심지와 가까워 이 역사문화적 자원들을 어떤 다른 마을보다도 전유하기에 유리했다는 점이다. 대마리는 연천에서 철원으로 들어오는 3번 국도의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서 접근이 편리하고, 또 경원선 복원 프로젝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현재의 발전으로 이끈 것은 주민들의

<sup>98)</sup> 이에 관해서는 김영광·정근식, 「영농중심형 재건촌의 형성과 생태마을로의 전환: 철원 양지리 연구」 『사회와 역사』, 제125권 (2020)을 볼 것.

집단적 노력이었다. 대마리 주민들은 군의 권위주의적 통제, 토지 소유권 분쟁, 지뢰 피해 문제 등 전략촌들이 공유하는 문제를 강도 높게 경험했다. 대마리 주민들은 군인과 함께 천막에서 생활하고, 목숨을 잃어가며 땅을 개간했으며, 보안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감시당하면서도, '개척정신'을 공유했고, 체계적인 마을 조직을 기반 삼아 마을 공동의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해나갔다. 이들은 통제소 북상과 민북마을 해제를 계기로 생태·관광마을로의 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했는데, 특히 냉전적 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적 상징자원들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가진 마을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었다.

대마리의 정체성 구성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안보지향주의와 평화지향주의간의 미묘한 긴장과 이의 조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0-80년대에 안보관광에서 냉전적 반공주의의 상징으로 활용되던 노동당사를 마을 회관의 모델로 채택하고 그 명칭을 두루미평화관으로 명명한 것이나 월북 종군작가였던 이태준의 기념비를 마을의 문화적 자원으로 인정하고 그 기념비를 마을 회관 앞에 세운 것을 대마리 주민의 평화주의로 해석하기보다는 마을 발전을 위한 실용주의의 산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이를 실용적 발전주의로 명명하고 싶다.

한국의 접경지역 전략촌들은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당기간동안 일반 농촌에 비해 넓은 경지를 경작할 수 있는 이점을 누렸지만, 동시에 지뢰나 남북간 심리전 같은 안전의 문제와 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토지소유권 분쟁을 겪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졌다. 지뢰피해를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또한 토지분쟁을 방치한 것은 명백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향군마을에서 복합적 생태·관광마을로의 성공적 전환이라는 대마리의 역사적 궤적은 접경지역 전략촌의 역사

적 변동을 설명하는 하나의 사례일 뿐 모든 전략촌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 대마리는 전략촌의 경제적 이점은 공유했지만, 지뢰문제와 토지소유권 분쟁을 상대적으로 심하게 겪은 사례에 속한다. 이를 극복하고 비교적 무난하게 생태 문화적 마을로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초기 개척경험을 공유한 1세대들의 강력한 공동체적 연대의식, 그리고 철원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전유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개방적이었던 2세대의 혁신적 마인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1월, 대마리는 ‘세모발자국’이라는 역사문화관을 개관하였다. 이 건물은 2016년에 발간된 <대마리 역사이야기>의 후속판이며, 지뢰라는 상징과 개척의 과정을 고통 분모로 하여 건립된 생태 문화 투어리즘을 의식한 건물이다.

그러나 이들의 공동체적 연대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공동체적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주민들간의 경제적 격차이다. 이들은 1970년 공동 개척지의 분배당시 6000평이라는 경지를 받고 비교적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했는데, 이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현재 이들의 처지가 매우 달라졌다. 이때부터 토지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한 주민은 자신들의 경지면적이나 토지소유의 규모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에게 집중되는 경향과 외부인의 토지소유의 증가를 언급했는데, 이런 차이는 개척과정에서의 사고여부와 이들이 분배받은 토지의 분쟁여부 외에, 가족 노동력과 자녀 교육, 그리고 개인의 근면성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 정확한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 하나의 위협요인은 접경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요구이다. 대마리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토지 가격은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듯한 분위기가 생기면 급등하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1994년 이후 수차례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그 때마다 주민들이 토지를 매각하여 외부인 토지소유비중이 커지고 동시에 내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특별한 법적 제도적 장

치가 없이 한반도의 탈냉전과 화해가 진행된다면, 접경지역에서 조금씩 축적되어온 공동체적 성과와 작은 평화들이 오히려 위협에 노출되는 역설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접수: 2020년 4월 6일 / 심사: 2020년 6월 7일 / 게재확정: 2020년 6월 8일

**【참고문헌】**

- 김영규 외, 『사진으로 보는 철원 100년: 철원의 변천사』, 철원: 철원문화원, 2009.
- 김영규, 『38선과 휴전선 사이에서: 철원주민 20인의 구술사』, 과천: 진인진, 2018.
- 안동준, 『기적의 나라 이스라엘』, 서울: 교학사, 1966.
- 정춘근 편, 『대마리 역사 이야기』, 철원: 철원군, 2016.
- 한모니까,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서울: 푸른역사, 2017.
- 강인화, 「재건촌과 냉전경관」 『사회와 역사』 제125권, 2020, 45~65쪽.
- 고광도, 「귀농선 북방 영농에 관한 연구-농업생산 및 근작전에 대한 새로운 기여 책을 중심으로」 『국방대학원 졸업논문집』, 1967, 189~223쪽.
- 김연정, 「민통선북방마을 여성-땅 관계의 경험서사를 통해 본 여성의 토지 '사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 김영광·정근식, 「영농중심형 재건촌의 형성과 생태마을로의 전환 - 철원 양지리 연구」 『사회와 역사』 제125권, 2020, 83~126쪽.
- 김인경, 「귀농선북방의 영농문제고찰」 『국방대학원 졸업논문집』, 1965, 253~272쪽.
- 박은영, 「기억의 장소, 철원 노동당사 폐허」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47권, 2017, 53~81쪽.
- 엄대용, 「민북마을의 통제완화에 따른 사회·공간적 변화-철원군 대마리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장형, 「수복지구 토지소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강원도 철원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석사학위논문, 2018.
- 전상인·이종겸, 「DMZ 국가촌락 사업 연구: 철원군 '통일촌'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52권 4호, 2017, 27~41쪽.
- 정근식·공민우, 「통일촌 유곡리의 조성과정과 공동체적 협력의 난점들」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23권 1호, 2020, 7~48쪽.
- 최성록, 「DMZ일원 국가사업에 있어 주민참여 현황과 과제」 『지방정부연구』 제15권 1호, 2011, 163~186쪽.

- Jung, Keun-sik, "On the Ruins: Forgetting and Awakening Korean War Memories at Cheorwon" *Development and Society*, Vol. 46, No. 3 (2017), pp. 523-555.
- Jung, Keun-sik, "The Militarization of the Border Area and the Cold War Landscape: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its Peaceful Use" *Journal of Asian Sociology*, Vol. 48, No. 3 (2019), pp. 287-319.

- 내무부, 「민통선북방지역개발」, 1980.
- 대통령비서실, 「접적 및 수복지구 개발을 위한 제2차 회의」, 1967.
- 문화재청, 「한국의 근대문화유산 - 철원 노동당사」, 2005년 4월 6일; <[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d=11&bbsId=BBSMSTR\\_1002&mn](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d=11&bbsId=BBSMSTR_1002&mn)>.
- 백마고지 관리소, 「백마고지 관광객 현황」, 2001.
- 육군본부, 「민통선 북방 전략촌 입주자 실태」, 1976.
- 이규철, 「천막동기들의 연혁」, 1987년.
- 이병렬, 「상허 이태준 문학비 유감」, 2013년 7월 23일; <<http://lby56.blog.me/150172437252>>.
- 철원군 농업정책과, 「대마리 토지 소유 현황」, 2002.
- 철원군 농업정책과, 「민통선북방지역 마을현황」, 1981.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지뢰피해의 현주소」, 1999.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녹색연합, 「한국지뢰실태조사보고서: 후방 36개 대인지뢰 매설지역 실태조사보고서」, 2001.

Construction of the Strategic Village and the Identity Change  
of the Veteran's Village in Daemari  
: Reserved Embracing the Peace Images

Jung, Keun Sik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Won Kyoo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provides a social-historical study of the first strategic village in DMZ border area, Daemari. Main Questions are the influence of their communal experiences during rebuilding process on the later social cooperation, and the acceptance of peace-implying symbols in this veterans' village as a part of its identity. Though residents have not fully recovered from the scars of mine accidents that occurred amid reclamation process and of land ownership conflicts, they were eager to inscribe the trajectory of communal hardships into the reclamation monument.

After 2000, Daemari residents started to express the orientation toward a new eco-cultural-village, and incorporated some peace-implying images beyond their early Cold War identity. This change was possible due to the second generation leadership that well inherited the communal tradition and sought to utilize local resources including ecological, historical, and cultural items in the context of pragmatic developmentalism. Such symbolic images include crane, local labour party headquarters, and Lee Tae-Joon.

Keywords: Strategic Village, Reconstructed Village, Mine, Reclamation Monument, White Horse Heights, Crane Peace Hall, Lee Tae-Joon

**정근식(Jung, Keun Sik)**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현재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장과 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에 관한 이론적 관심과 함께, 접경지역의 전략촌과 기지촌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냉전의 섬 금문도의 재탄생』(2016), 『한국전쟁 사진의 역사사회학』(2016) 등이 있다.

**이원규(Lee, Won Kyoo)** 

---

서울대학교에서 서양사학과 사회학을 전공하는 학부생이다. 주요 관심 주제는 근현대 동아시아에서의 탈식민주의, 개발국가, 기억과 재현 등이다.